들어와봐 애니메이션 세계로

슈렉 시리즈 마지막 편 '…포에버' 내달 1일 개봉
'토이 스토리 3' 3D 영상으로 11년만 관객 곁으로
순수 국내기술로 만든 '지구대표…' 대기 중

픽사, 드림웍스 등 애니메이션 명가들이 내놓은 작품들이 속속 개봉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01년 '치킨 런' '개미' 등 화제작들을 만든 드림웍스가 제작한 '슈렉' 시리즈는 기존의 동화를 뒤엎은 발칙한 상상력과 다양한 캐릭터로 성인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애니메이션.

오는 7월 1일 개봉하는 '슈렉 포에버'는 '슈렉'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다.

'슈렉 포에버'는 한 가정의 평범한 아빠와 남편으로 반복되는 일상에 따분함을 느끼고 단 하루의 일탈을 꿈꾸던 슈렉이 악당 럼펠의 계략에 속아넘어가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목소리 연기는 카메론 디아즈, 안토니오 반데라스 등 전편의 출연진들이 그대로 맡았으며 한국어 버전에서는 이수근이 악당 럼펠 역으로 출연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캐릭터인 악당 럼펠이 눈길을 끌며 피오나 공주, 동키, 장화 신은 고양이 등 다른 주인공들도 전편과 다른 모습을 선보인다.

'니모를 찾아서' 등을 제작한 디즈니·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내놓은 '토이 시리즈 3' 역시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는 작품이다.

각각 1995년과 1999년 개봉된 '토이 스토리'와 '토이 스토리 2'는 첨단 컴퓨터 그래픽과 깜찍한 캐릭터, 기발한 상상력에서 나온 완성도 높은 시나리오 등으로 인기를 모았었다.

'토이 스토리 2' 이후 11년만에 관객들을 찾아오는 '토이 스토리 3'은 3D 애니메이션으로 8월 5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대학생이 된 앤디와 헤어져야 하는 운명에 처한 우디와 우주영웅 버즈 등 기존 장난감 주인공들과 새로운 캐릭터들이 벌이는 모험을 그린 작품이다.

1·2편에도 출연했던 톰 행크스는 물론 마이클 키튼, 우피 골드버그, 티모시 달튼, 보니 헌트 등 할리우드 최고의 특급 스타들이 새롭게 '토이 스토리 3'의 '장난감 군단'에 목소리 연기자로 합류했다.

'아이스 에이지'의 제작진이 다시 뭉친 '슈퍼 배드'는 세계 최고의 악당을 꿈꾸는 그루가 '세계 최고로 못된 악당 되기' 작전을 세우고 세 소녀를 입양하면서 벌어지는 모험과 가슴 따뜻한 감동을 담은 3D 애니메이션이다.

특히 이번 작품에는 여성그룹 소녀시대의 태연과 서현이 애니메이션 더빙 연기에 도전, 화제를 모으고 있다.

태연이 맡은 첫째 언니 마고는 야무지고 똑 부러진 성격으로 언제나 두 동생을 책임감 있게 보살피는 캐릭터다. 또 서현이 맡은 에디트는 예측을 불허하는 장난으로 그루에게 두통을 안겨주는 귀여운 말썽꾸러기다.

국산 애니메이션도 개봉 대기중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KBS2에서 방송된 TV 애니메이션 '롤링스타즈'의 극장판 '지구대표 롤링스타즈'가 화제의 작품.

'지구대표 롤링스타즈'는 야구가 사라져버린 2030년 지구를 배경으로 평균 이하 말썽꾸러기들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주 최강팀인 '데블스'와 불꽃 튀는 승부를 펼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순수100% 국내 기술로 만든 완성도 높은 스토리와 파스텔톤의 살아있는 캐릭터, 야구 게임 특유의 역동감이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영화 '천하장사 마돈나', '그림자 살인'의 류덕환이 주인공 럭키의 목소리를 맡았고 럭키의 아빠 빅 역은 최근 드라마 '개인의 취향'에 출연했던 영화배우 류승룡이 연기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 영화 나잇 & 데이

혼자서도 거뜬히 영화를 책임질 수 있는 톱스타 톰 크루즈와 카메론 디아즈가 함께 호흡을 맞춘 액션 드라마로 로맨틱 코미디의 요소도 물씬 풍긴다.

공항에서 우연히 마주친 밀러와 같은 비행기에 탄 준은 친절한 밀러에게 호감을 느끼고 그와의 로맨스를 꿈꾼다.

톰 크루즈·카메론 디아즈 호흡 맞춘 액션 드라마 카리브해 등 볼거리 풍부

하지만 밀러는 준의 생각처럼 단지 호남만이 아닌, 쫓기는 특수요원. 밀러는 준이 화장실에 간 사이 승객으로 위장한 요원과 격투를 벌이다 기장마저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후 준은 밀러와 도매금으로 묶여 쫓기는 신세가 되고 어리버리함에서 벗어나 때론 밀러처럼 용감무쌍해진다.

미국의 보스턴과 뉴욕, 오스트리아, 스페인, 열대 카리브해까지 세계 곳곳에서 로케이션 촬영한 화려한 볼거리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미션 임파서블' '메리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미녀 삼총사' 등 다양한 작품에서 실망시키지 않는 연기를 보여준 두 배우의 조합이 유쾌함을 더한다. 제임스 맨골드가 메가폰을 잡았다. 〈15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